

■ 기업이윤 사회환원 앞장 청구종합건설 박정현 회장

“회사 성장 원동력은 이웃 돕는 일”

매년 소외계층 집 10~20채씩 무료 개·보수 장학재단 운영...고향에 미니버스 기증 희망도



700억원에서 올해는 1천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서광주세무서로부터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박 회장은 “회사가 커질수록 사회공헌과 성실납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윤추구의 범위는 사회나 고객, 직원 등의 공동의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어린시절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준 고향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건만 허락되면 고향 대평리 인근을 오가는 미니버스 4~5대를 기증하고 기사들의 봉급이나 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고향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청구종합건설 박정현(54·사진) 회장은 광주·전남 건설업계에선 ‘우렁각시’로 통한다. 매년 ‘사랑의 집’ 개보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집 단장을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박 회장이 사비를 털어 집을 고쳐준 곳은 총 100여곳. 매년 10~20채대의 소외계층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집을 새로 단장했다. 올해는 개보수 대상을 40~50세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박 회장은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발벗고 나서으로써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고쳐주는 일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할 때도 거르지 않을 만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택 개보수는 물론, 불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커트가게로 시작한 사업이 (주)현대개발건설, (주)청구종합건설 등으로 분과도에 오르자 본격적인 사회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봉사 영역도 주택 개보수를 비롯, 소년·소녀 모범학생 결연, 불우시설 방문, 장학재단 운영, 국제모타리클럽을 통한 사회봉사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 주택 개보수의 경우 각 공사현장의 감독을 자청하는가 하면

자사에서 판매하는 도배지나 장판지 사용을 고집할 만큼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의 이같은 의지는 회사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주)청구종합건설은 (주)현대개발건설 등 16개의 사업체에 직원 200여명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매출도 지난해

재정부 1차관 “상속·소득세 인하 검토”

“추경편성 입장 여전 ... 무리한 경기부양은 안해”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경편성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08 WCO IT(정보·기술) 콘퍼런스 & 전시회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어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큰 방향에서 앞으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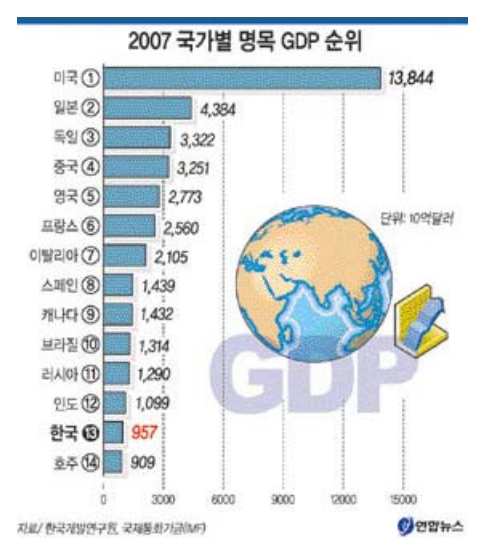
다”면서 “물론 시기와 인화 폭은 검토 후 결정할 일이지만 (강만수)장관 재임기간중에 추진될 것이며, 상속세와 소득세 뿐 아니라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 달러자금 부족과 관련해 중국은행, 유럽계 은행들도 국내은행에 대출을 꺼리는 것에 대해 “달러 약세로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 유럽계 은행이 달러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면서” “전 세계적인 통화시장의 구조적 원인이어서 비롯된 것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감

당해야 할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물가에 대해 그는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물가는 3% 초반대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제규모’ 또 한계단 하락 13위

한국 2007년 명목 GDP 9,570억 달러 ... 인도에도 뒤져

KDI, 세계경제 자료 분석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로 또 한계단 하락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9천570억 달러로 비교대상 18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된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05년 기준 7천92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했으나 2006년 14위였던 러시아에 밀리면서 세계 12위로 내려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위였던 인도에 뒤지면서 또 한 계단 떨어졌다.

GDP 세계 순위는 1위 미국(13조8천440억달러), 2위 일본(4조3천840억달러), 3위 독일(3조3천220억달러), 4위 중국(3조2천510억달러), 5위 영국(2조7천730억달러) 등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최근 4년간의 저성장 국면속에서도 연평균 850억 달러 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2006년

기준 5천43억 달러로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대경제연구원은 23일 ‘소득 2만달러 시대,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5천43억 달러로 일본의 3조2천259억 달러와 미국의 13조95억 달러에 비해 각각 6분의 1,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5분의 1, 미국의 14분의 1 수준인 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경제규모와 걸맞지 않게 작아 심각한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합뉴스

유가 또 최고치 달러화는 하락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미국 달러화 가치와 나이지리아, 영국의 석유 공급차질 우려가 겹치며 중동산 두바이유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0.24달러 상승한 108.20달러선에 형성되며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장중 배럴당 119.90달러까지 치솟아 120달러선에 육박한 뒤 전날보다 1.89달러 오른 119.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역시 장중 116.75달러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운 뒤 전날보다 1.52달러 오른 115.95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연합뉴스



터키식 액세서리 예쁘조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3일 백화점 2층 모네 매장에 터키식 여름 액세서리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었다. 터키식은 밝은 청색이나 녹색 등을 띄며, 시원한 느낌과 눈을 편안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5>

삼성 ‘쇄신안’ 재계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현대·기아차, 금호 등 직간접 영향 ‘글로벌 경쟁’ 현재제 유지 가능성도

삼성그룹이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전략기획실 해체를 결정함으로써 아직도 그룹 총괄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 그룹들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의환위가 이후 재벌그룹 오너의 ‘황제경영’과 이를 뒷받침해온 회장비서실 또는 기획조정실의 폐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재벌그룹들 가운데 일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을 택한 반면 상당수 그룹은 이들과 성격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룹경영을 총괄하고 계열사를 통제하는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의 선구자 격인 LG그룹의 경우 2003년 3월 지주회사인 ㈜LG를 출범시켰다. SK그룹 역시 2003년 6월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는 대신 SK㈜에 투자회사인 SK투자회사를 두고 사업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동시에 ‘SK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독립기업의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연합 모델을 도입해서 각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보장

했다. 이밖에 GS, 두산, CJ그룹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롯데,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그룹 등 상당수의 그룹들은 아직도 다양한 이름의 그룹 총괄기구를 두고 있다.

삼성의 전략기획실 해체가 이들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재계 관계자는 “결국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 변경은 정치권과 사회여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정부가 각종 규제 등을 감안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현재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의 한 임원도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벌체제가 나름의 장점이 있는만큼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 그룹의 논리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장 “금리 인하 바람직”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기본 자세에 변화가 있다”며 “지난 정부가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라면 우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국제 금융사회에 주는 신호, 금융중심지 조성 과제 등을 감안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4월말이나 5월초에 확정하겠다”며 “민영화 과정에서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들이 (지분 인수) 참여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외환시장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금리는 외부 여건을 감안해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물가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가인디에스엔	[롯데백화점 광주점]현장설계,삽드로링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2-417-4359
센트럴관광호텔	호텔서비스 정규직 사원모집(프린트/외식사업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62-383-7575
남영건설	08년 남영건설 상반기 신입/경력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62-3600-781
조이스시스템	관리직 사원 구함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30	062-716-8203
SK텔레콤 광주직영점	SK텔레콤 광주직영점 매장관리, 개통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30	062-234-9464
㈜화인코리아	정규직 사원모집(연구개발/생산/경영/운송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1-330-4523
비엠텔로벌	백화점 골프웨어(올시) 매장관리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30	062-360-1539
이지원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인팀장 경력직 모집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30	062-611-5848
㈜사사,프리제리	여 사무관리직 웹디자인사 구함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1-383-4421
금호건설	건축기사 모집공고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30	062-384-7201
아용기공	기술연구소(기술개발 및 설계,CAD)근무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04/30	061-382-4401
(유)신일산업	정규직 생산직 사원 모집(자동차부품 조립)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30	062-956-7381
김대중컨벤션센터	2008 광주국제체육산업전 사무국 계약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4/30	062-611-2213
㈜지드림 디자인그룹	공무, 발주 및 권리업무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6	062-225-0401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반지도 g 단위로 사고 판다

법정 계량단위 돈·냥 폐지

오랫동안 ‘돈’, ‘냥’ 단위로 이뤄졌던 금제품의 거래 관행을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금형 보급과 캠페인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법정계량단위제도 운용을 맡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24~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한국 국제보석제 전시회’에서 귀금속판매업 중앙회와 함께 홍보관을 만들어 g 단위로 순금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